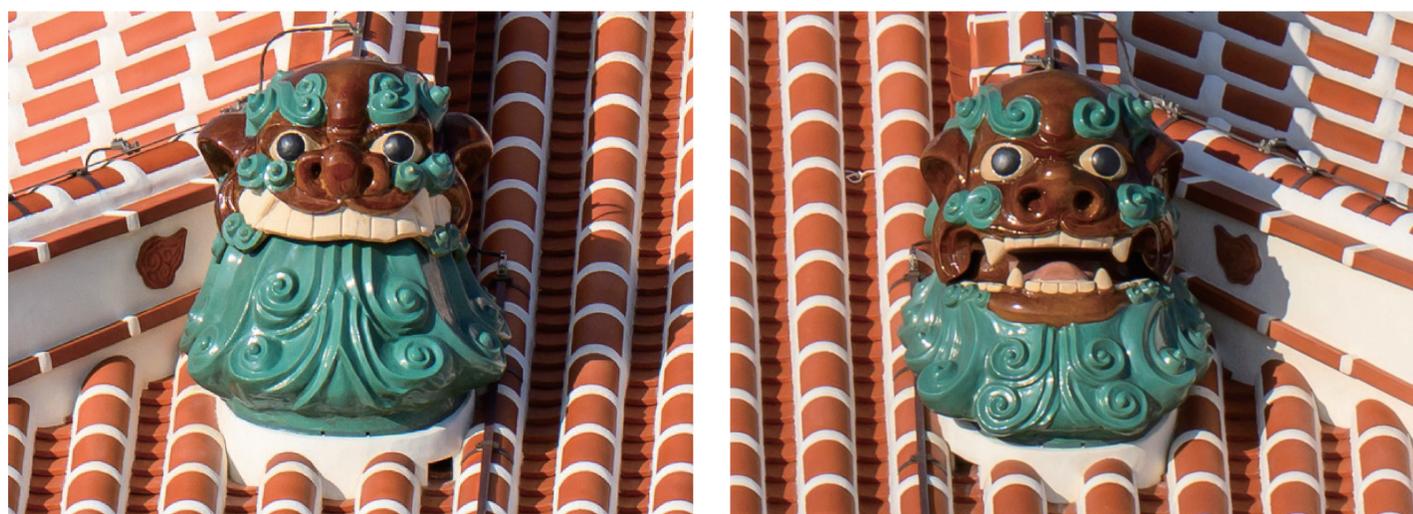


정전 지붕에 배치되어 있는 장식 기와입니다. 슈리성에는 ‘도깨비’가 아닌 ‘사자’의 형상이 사용되었습니다.

## // 레이와 시대의 복원

일본 국내외에서 모인 슈리성 복원 기금을 활용했습니다. 전쟁 이전에 촬영된 옛 사진을 고해상도로 스캔하여 정밀하게 분석한 뒤, 이를 바탕으로 점토 모형을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감수자와 제작자가 여러 차례 검토를 거치며 형상을 확정하고, 이를 석고 원형으로 본떠 실제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도깨비기와는 먼저 가마에서 초벌로 구운 뒤, 색을 더하는 유약을 바릅니다. 오키나와의 전통 유약 등 현지에서 생산된 원재료를 중심으로 당시의 색감을 재현하고, 가마에서 다시 한 번 더 소성합니다. 이렇게 완성된 총 6장의 도깨비기와 가운데 4장을 선정하여 정전 지붕에 설치했으며, 나머지 2장은 이곳에 전시하고 있습니다. 정전 지붕에 올려진 도깨비기와의 압도적인 크기와 뛰어난 기술력을 가까이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 // 도깨비기와 제작 공정

장인의 손을 거친 여러 공정을 통해 슈리성 정전에 걸맞는 위엄 있고 당당한 모습의 도깨비기와가 완성되었습니다.



## // 헤이세이 시대의 도깨비기와 잔존물

슈리성 화재 때 소실되지 않은 일부 도깨비기와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 도깨비기와는 2025년 4월 13일부터 10월 13일까지 개최된 ‘2025년 일본국제박람회(오사카 간사이 엑스포)’의 프랑스 파빌리온에서도 전시된 바 있습니다.

